KU KONKUK UNIVERSITY 2023학년도 제7회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 미디어콘텐츠학과 졸업작품 단편영화

'우리 같은 사람'

감독 **김광호**

각본 **이명훈**

□ 시놉시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하는 건 사랑이고, 벌레가 하는 건 교미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퀴어소설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스타작가 조현기, 퀴어소설의 작가답게 자신도 퀴어라고 어필해서 잘나가는 소설가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완벽한 이성애자로, 퀴어소설가라는 컨셉을 위해 대중들 앞에서 퀴어라고 속이고 있는 상황. 그런 그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의 친구 무영이 죽고, 현기는 문득 자신이 퀴어가 아님을 대중들 앞에 밝히기로 결심하는데….

□ 작품 의도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기존 퀴어 작품들에서 볼 수 있던 사랑을 대하는 방식을 해체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퀴어들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들을 우리 일상에 녹여보고자 했다.

성 소수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고리타분한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성소수자니 백인이니 흑인이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심장이 뛰는 생물로서의 ‘우리’라고 말하는 이 2인칭 대명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작품의 제목인 ‘우리 같은 사람’은 쉼표가 어디에 찍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우리, 같은 사람’과 ‘우리 같은, 사람’. 얼핏 보면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같은 사람’, 쉼표가 앞에 찍힌 경우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장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와 같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로 나누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게 쉼표가 앞에 찍힌 사회를 바라는 것은 아직은 많이 이르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먼저 쉼표를 뒤에 찍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같음을 받아들인 후에 언젠가는 쉼표가 앞에 찍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1 **파천서부경찰서 / 낮**

사람들로 분주한 경찰서 내부. 현기가 의자에 앉아 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다. 현기의 시선이 잠시 책상 옆에 꽂혀있는 소설책 '러브 앤 러브 앤 러브'에 꽂힌다. 잠시 후 경찰이 파일을 들고 나타나 현기의 맞은편에 앉는다.

경찰 아이고, 뭐 좋은 데서 뵙는 건 아닌데… 팬입니다. (악수를 청한다)

경찰이 손을 내밀자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 마주 악수하는 현기.

경찰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조사는 아니니까… 편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자살인 상황이라… 지금.

현기 …

경찰 아시다시피, 김무영 씨의 마지막 전화 상대가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하고…

현기 …

경찰 뭐,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 안부라든지 뭐…

현기 …(대답이 없다.)

경찰 사실 저희 입장도 좀 그래요. 이렇게 고인 주변 사람 마음을 후벼파고 하는 게 아무리 일이라지만, 썩 내키지가 않아서… 그 대략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갔다 하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사건 파일 뒤에 감춰두었던 책을 꺼낸다.)

현기, 고개를 들어 올린다. 경찰은 책의 첫 장을 펼치더니, 현기에게 슬쩍 책을 민다. 경찰의 얼굴 클로즈업.

경찰 싸인 한 번만. 제가 팬이라서.

[타이틀인, '우리 같은 사람']

#2 **현진출판사 / 낮**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뒤에서부터 굽은 현기의 등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출판사 내부는 전화를 받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유리 벽으로 가로막힌 회의실 하나가 있고, 그 안에서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편집장의 모습이 보인다. 편집장이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우루루 나가는 직원들. 직원들이 다 나간 다음에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현기. 편집장은 커피를 내린다.

편집장　(커피를 내리며) 작가님, 여기 생각보다 방음 잘 되는 거 알아요?

현기　네?

편집장　조용히 말하면, 아무도 못 듣는다고.

편집장, 자리에 앉아서 현기 쪽에 커피를 내민다.

편집장　문자 봤어요. 나만 봤어. 사장님도 모르고, 이사님도 모르고, 나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현기　뭐가요?

편집장　게이가 아니게 됐다는 말, 그거 무슨 뜻이냐고요.

현기　그러니까, 원래부터 게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편집장　그러니까 현기 씨가 게이가 아닌데 게이인 척 연기를 했다, 그렇게 소설을 썼다. 이거잖아요? 지금.

현기　맞아요.

편집장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말하겠다고?

현기　인터뷰에서 말하려고요. 이번 북 콘서트에서…

편집장　현기 씨, 지금 이번에 소설 내죠? '러브 앤 러브 앤 러브' 이거 영화화 계약 완료돼서 지금 촬영 끝나고 크랭크인 들어갔어요. 여기 엮인 사람들만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은 될 거야.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요? 이거 현기 씨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현기　…(대답이 없다.)

편집장　(한숨을 내쉰 뒤 벌떡 일어나며) 그럼 원래 게이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퀴어 소설을 썼잖아요? 퀴어라고 말하고 다니고. 그거 왜 그랬는데요? 그럼?

현기　죄송합니다.

편집장　죄송할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진짜 남자랑 막 뽀뽀를 못 하겠고 그래?

현기　…

편집장　난, 난 할 수 있어. 현기 씨하고도 뽀뽀할 수 있고, 저기 김 팀장하고도 할 수 있고. 이번 프로젝트랑 영화를 위해서라면 뽀뽀가 아니라, 키스도 할 수 있어. 현기 씨, 대중예술이 원래 그래. 작가와 작품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 현기 씨 이번에 커밍아웃하면 난리 나는 거 알잖아요. 우리 다 죽는 거야. 적어도 6개월만 참아요. 6개월만 게이로 살아. 여태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응?

현기　그게… 그래도 말을 해야겠어서…

편집장　(버럭하며) 그러니까, 6개월만 참으라잖아!

순간, 유리 벽 너머의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회의실로 향한다.

#3 **출판사 앞 거리 / 낮**

현기, 출판사 앞에서 자기 얼굴이 걸린 현수막을 올려다보고 있다. 퀴어소설가 조현기, 북콘서트, 9월 9일이라고 적혀 있다.

현기 (*v.o) 무영이 죽자마자 귀신같이 매미 우는 소리가 멈추었다. 여름이 끝났다는 뜻이다.*

화면은 현수막과 그것을 바라보는 현기의 모습을 풀 샷으로 보여준다.

#4 **현기의 자취방 (과거) / 낮**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현기의 조그마한 원룸이다. 무영은 침대에 앉아 있고, 좌식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 앉아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는 젊은 현기.

무영 아… 그러니까, 게이에는 세 가지 프레임이 있어. 끼순이, 일틱, 베어.
현기 (타자를 두들기며) 베어는 왜 베어인데?

무영, 침대에서 내려와 현기의 턱을 매만진다.

무영 아이고, 여기 이쪽에 털이 많아서.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털이 많아서 베어.
현기 털?
무영 근데, 타고 나야 돼. 너같이 이방 수염 나는 새끼들은 머리털 뽑아 붙여도 못해. 이거… 야 그리고, 음… 요즘 들어 방송에 나오고, 이태원에 돌아다니는 캐주얼 호모들. 네가 제일 넘어야 할 선이 그거야.
현기 프레임화 시키지 말고, 공감대를 유지하고, 최대한 쿨한 척하고?
무영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 그래, 쿨. 그래 그 쿨이 중요한데, 여기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 안 돼?
현기 2,000원 내면 30분 틀게 해줄게.
무영 아이씨, 인터뷰 값으로 퉁 쳐!
현기 아유, 알았어.

현기가 에어컨 리모컨을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에어컨이 열리고,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에 얼굴을 대고 눈을 감는 무영.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무영 하아… 너 지금 누군가한테 커다란 실례를 저지른다는 자각은 하고 있지?

현기　　그 누군가가 누군데? 너?

무영　　일단 나는 아닌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난 아니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현기와 무영. 매트리스 위에 올라탄 무영은 한참을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다.

#5　　**현기의 자취방 / 낮**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방. 무영만 없다. 에어컨은 펑펑 틀어놓고 있다. 침대 위에는 이불과 겉옷들 무더기로 가득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도 하다. 현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다. 옷더미와 이불로 뒤덮인 침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미미　　아, 온도 좀 올려. 골 아파.

현기　　이것만 하고, 금방 끝나.

미미　　아, 씨발!

미미가 침대 위 이불과 옷가지 더미 위에서 빠져나온다. 정신 차린 듯한 얼굴로 벌떡 앉아 머리를 매만지는 미미.

미미　　그래서, 진짜 말을 하겠다고?

현기　　그렇다니까.

미미　　그럼 우리 전세금은? 내년에 계약금 받고 대출 없이 전세 잡자며, 서울에!

현기　　어떻게든 되겠지. 새로 일을 해도 좋고.

미미　　얼굴 다 팔린 마당에 어디 가서 일을 하냐? 이 더위에 놀이공원 가서 탈이라도 쓸래?

현기　　너도 좋잖아. 스킨십도 하고, 뭐 손도 잡고…

미미　　언제 안에서는 했니?

현기　　(미미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해줘?

미미, 현기에게 티셔츠를 집어 던진다. 티셔츠는 그대로 현기의 얼굴에 걸린다. 티셔츠에는 '러브 앤 피스'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현기는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덮고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선다.

미미　　어디가?

현기　　밖에.

미미　　밖에 어디?

현기　　그냥… 밖에.
미미　　재활용 가지고 내려가!

현기, 아무 대답 없이 집을 나선다.

#6　　현우의 자취방 앞 / 석양이 지는 저녁

초인종 소리. 현기가 문 앞에서 상자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 안에서 문이 열리고, 멀쑥한 차림의 현우가 등장한다. 현우, 뭔 일이냐는 듯 현기를 바라보고, 현기는 살짝 어깨를 으쓱인다.

현기　　(어색하게 웃으며) 무영이 물건. 필요할까 싶어서.

#7　　현우의 자취방 / 석양이 지는 저녁

현기의 집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리돼있는 현우의 집. 현우는 인센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좌식 테이블에 앉아 있는 현기의 앞에 캐모마일 티를 내민다.

현우　　같이 오래 살긴 했나 보네. 챙긴다고 챙겼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면.
현기　　미미가 고생했지 뭐.
현우　　무영이 형도 힘들었을걸요? 그 형 성격에 커플 사이에 끼여서 살려니… 모텔에서 죽은 것도 그쪽 집값 떨어질까 봐 그랬을 거야. 맞죠?
현기　　그건 모르지.
현우　　(쓴웃음을 지으며) 그걸 몰라요? 그쪽은 다 알지 않나? 무영이 형에 대해서?
현기　　왜 헤어졌어?

(인서트) 인센스가 타들어 가는 모습.
현우의 얼굴 굳는다.

현우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혹시 내 탓 하려고 온 거에요?
현기　　그럴 리가 있나. 누가 쏴 죽인 것도 아니고 제 혼자 죽은 건데.
현우　　그럼 왜 묻는 건데? (차를 마시려다 데인 듯) 아 뜨거워!
현기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 다 알아.
현우　　식지는 않았죠. 식지는 않았지…

현우는 가만히 찻잔을 내려다보며 매만진다.

현우　내 사랑이 너무 고결하대요. 그래서 못 하겠대.
현기　응?
현우　너무 번지르르하고 귀해서 사랑이 아니라잖아요.

(인서트) 인센스, 완전히 타들어 가서 떨어진다.

#8　여름 거리(과거) / 낮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나란히 걷는 무영과 현기.

무영　사랑이 오염됐어.
현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영　요즘 사람들 사랑 말이야. 오염됐다고. 뭐, 헤테로니 뭐니 다 떠나서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아. 거울 보며 폼 잡는 것처럼.
현기　폼 잡는 게 뭐 어때서. 창피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
무영　현우는 왜 화를 내도 멋지게 화를 낼까?
현기　또 싸웠냐?
무영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 현우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울까. 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엉망인데?

현기, 갑자기 멈춰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든다. 무영, 그런 현기를 두고 계속 걷는다.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받아적는 현기. 무영은 몇 미터 더 걸은 다음에야 돌아본다.

무영　야! (손가락으로 현기를 가리키며) 너, 내가 진짜 그거 소설 뭐가 나오는지 꼭 본다. 진짜 어? 내가 인세도 받아 갈 거야 진짜.
현기　알았으니까, 일단 계속해 봐.
무영　뭘 계속해, 계속하기는?
현기　사랑.

무영, 어이없다는 듯이 현기를 바라본다. 표정에서 어딘가 낙담한 얼굴까지 가득하다.

#9　여름 거리 (현재) / 저녁

현기, 현우와 나란히 걷고 있다.

현기　무슨 마중을 와? 새삼스럽게.

현우　그냥, 걷고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무영이 형 걸었던 길도 좀 보고.

현기　그래 뭐.

(잠시 말이 없던 둘)

현우　근데 진짜 말할 거에요?

현기　뭐를?

현우　게이가 아니라는 거.

현기　그렇게 될 것 같아.

현우　감당 가능하겠어요? 아니 돈도 돈인데, 욕먹을 거 아니야. 어디 뭐 지나가던 게이한테 칼빵 맞고 그러는 거 아냐?

현기　각오하고 하는 거야.

현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나도 무영이 형 죽고 참 많이 울었어요. 헤어진 지 두 달 지나도 애인은 애인이더라. 막 눈앞이 아른거리고 같이 살 때 썼던 칫솔 보고 또 울고. 근데 뭐 어쩔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잘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잘 살면 그만 아냐?

현기, 대답이 없다. 그냥 그저 걷는다. 저벅저벅 걷는 소리.

현우　(갑자기 멈춰 서며) 형.

현기, 몇 걸음 더 가다가 멈춰 선다. 천천히 현우를 돌아본다.

현우　형이 게이 아닌 거, 그거는 확실했던 건 맞죠?

현기　어?

현우　하… 내가 진짜 구질구질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이 자꾸 나서 그래. 무영이 형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죽은 사람 마음은 내가 잘 알겠는데, 산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 형이 무슨 생각 했는지, 무영이 형이랑 어땠는지, 좋았는지, 뭘 했는지.

현기, 대답이 없다.

현우　무영이 형은 형 좋아했어요. 알죠?

현우와 현기를 카메라가 멀리서 비춘다.

#10 현기의 자취방 / 밤

현기와 미미가 서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있다. 둘 다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다. 무영은 메모 앱을 켜고 안에 있는 내용을 읽는다. “사랑은 오염됐다. 구질구질 구질구질…”

미미 자?

현기 아니?

미미 나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

현기 왜?

미미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평생 한강에서 손 안 잡아도 되고, 평생 모텔도 마스크에 모자 쓰고 들어가도 좋으니까, 오빠가 그냥 그대로 작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현기 소설은 계속 쓸 거야.

미미, 현기 쪽으로 몸을 돌린다.

미미 어떻게 써. 혼자 쓰겠지. 누가 보겠어. 아무도 보지 않는 소설이 소설이야?

현기 (미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너는 볼 거 아니야.

미미 그냥 죽은 사람 연애담이야. 그냥 은퇴해. 그리고 숨어 살자. 이사를 가자. 응?

현기 아, 몰라.

미미 너 나한테 뽀뽀 한 번만 해 봐.

현기,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미미에게 다가가 키스한다. 천천히 입술을 떼는 둘.

미미 이거 가짜야?

현기 (머뭇거리다가) 아니.

미미 그럼, 거짓말인가?

현기 …아니.

미미 그럼 괜찮아.

현기, 가만히 미미를 바라본다.

미미 괜찮다고. 나도 이거 엄청 뻔한 말인 거 아는데, 뻔한 말을 굳이 하는 건 진심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빠, 괜찮다고.

현기, 미미를 흔들리는 눈으로 보다가, 가만히 돌아눕는다. 돌아누운 자리에는 무영이 누워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서로를 마주 보는 무영과 현기.

#11 **늦여름 골목(과거) / 낮**

때 양 볕이 드리운 자리. 무영은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다. 둘 다 교복 하복을 입고 있다. 같은 학교 학생으로 보인다.

현기 뭐 봐?

무영 매미 시체.

현기 넌 무슨 그런 걸 보냐?

무영 얘는 짝짓기는 했을까? 여름 내내 울어댔을 거 아냐.

현기 했겠지.

무영 했었으면 좋겠어. 사랑 한 번 해보려고 몇 년을 기다렸을 텐데.

현기 벌레가 하는 게 사랑이냐? 교미지.

무영 (갑자기 현기를 올려다보며) 정말 그렇게 생각해?

현기 뭐가?

무영 우리가 하는 건 사랑이고 벌레가 하는 건 교미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현기 아니 뭐…

무영 (현기를 올려다본 채로) 나 게이야.

현기 (살짝 당황한 얼굴로) 뭐?

무영 (일어나며) 게이라고. 남자 좋아해.

현기 (잠시 멍하니 생각하는 듯하다가)…알아.

무영 알 것 같았어. 가자! 덥다.

무영,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걸어가고 현기는 그런 무영을 보다가 터덜터덜 따라간다.

#12 **현기의 집 앞 / 새벽**

빌라 단지 앞. 현기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 무언가 결심을 한 듯, 핸드폰을 꺼내 편집장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를 시작하자 갑자기 울리는 매미 소리. 현기의 통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매미 소리와 같이 잔잔한 음악 소리가 깔린다.

#13 **한강대교 / 밤**

현기의 얼굴 클로즈업. 상당히 피로한 얼굴이다. 이어폰을 양쪽에 끼고, 휴대전화를 꺼

내 통화 녹취 파일을 튼다. 녹취 파일이 들리는 동안 몽타주로 뒷골목 정경과 텅 빈 현기의 방, 길거리를 걷는 고양이, 매미 시체가 지나간다.

녹취 파일 (v.o)

현기 *뭘 또 울어.*

무영 *아니, 그렇잖아. 이럴 때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언제 만나나 싶고*

현기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

무영 *중요하지.*

현기 *난 소설 쓰면, 그냥 거짓말로 그렇게 막 쓰다 보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 나는 사랑? 그런 거 진짜 별거 아니야. 막말로 미미랑도 7년이고 우리 이제 손도 안 잡고 살아. 사랑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 위로하고 집 가서 한글창 키고 무슨 생각하는지 너 알아?*

잠시 침묵이 돌고, 현기는 천천히 말한다.

현기 *차라리 내가 게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

몽타주 끝. 다리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현기를 기울어진 앵글로 촬영한다. 그 위에 현기의 내레이션이 깔린다.

현기 *(v.o) 결국 무영의 말이 맞았다. 구질구질, 구질구질… 사랑은 이미 오염된 지 오래였다. 여름이 갔는데 단풍이 없다.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럴 것이다.*

다리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현기. 익스트림 롱샷. 엔딩 크레딧.